

주 앞에 두 증인

본 문 요한계시록 11장 3-6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성령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증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듣고 이대로 해야 대역사를 이루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어 생명들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먼저 선생이 주님과 함께 전초 말씀을 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깊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이 꺾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증인을 땅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했습니다.

*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아’였습니다.

-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지 않는 사탄 주관권에 있는 이집

트를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바로 왕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 그런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해하고 탄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재앙을 내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멸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증거했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안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세히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며 말씀하겠습니다.

<모세>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채찍질하고 짐승같이 대우하며 부려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형제 가운데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왕에게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마음은 점점 강박해져서 모세의 말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인인 모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리니 외쳐라.”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의 입에서 ‘말씀의 불’이 나갔고, 그 말대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참조: 출 7~11장)

첫 번째로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고로 물고기들이 죽고, 사람들은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집트 전역에 개구리들이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로 땅의 티끌이 모두 이로 변하여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올랐

습니다.

네 번째로 파리 재앙이 내려 파리가 가득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한 돌림병이 일어나 이집트의 가축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모세가 날린 티끌이 독종이 되어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붙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집트 개국 이래 이 같은 우박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모든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에 내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메뚜기가 온 대지를 덮었습니다. 모세가 신의 지팡이를 들어 하늘에 올리니,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여 바람을 타고 메뚜기들이 먹장구름같이 날아와 온 이집트를 덮어 이집트 전역의 각종 농작물들을 다 갉아 먹어 없었습니다. 우박이 있은 후 남은 농작물들을 메뚜기들이 다 갉아 먹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집트에 3일 동안 어둠이 덮여 서로를 알아볼 수 없고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를 불러 네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다시 마음이 강퍅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열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람과 가축을 막론하고 처음 난 장자를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이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집트인이라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결국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았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또 바로 왕은 마병대를 보내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명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가 보낸 마병대를 다 멸하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 때 사람들은 아합 왕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

나님을 믿지 않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을 하나님이라 하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참조: 왕상 17~18장)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3년 6개월, 곧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선포하여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말하기를 “내 말이 아니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불과 몇 마디 말씀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인 엘리야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입에서 말씀의 불이 나가서 그 당시에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을 섬기던 우상 선지자 850명이 모두 멸함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땅의 대표적인 두 명의 사명자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보다 외적인 역사를 펴며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내적인 세계로 역사를 펴며 그 시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심을 외치며 증거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어 함께 일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말해 주고 증인이 되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영상1>

① <자막> 구약시대 하나님의 두 증인 : 1. 모세

-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하는데 이집트인들이 채찍으로 때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라고 하심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는다.

모세가 말하는 대로 이집트에 재앙이 내렸다.

이어서 설교 내용에 나온 열 가지 재앙이 지나간다.

(재앙이 화면에 지나가는 대로 밑에 자막 : 물이 피로 변하다 / 개구리들이 지면에 올라오다 / 파리 재앙 / 가축들이 모두 죽다 / 독종이 발하다

/ 우박이 내리다 / 메뚜기가 올라와 사람이 먹을 것을 다 갇아 먹다 /
어둠이 연속되다 / 사람과 가축을 막론하고 처음 난 장자가 모두 죽다)

그 후 모세가 백성들 끌고 나오는 모습

그러나 바로가 보낸 마병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다.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바로의 마병대는 죽었다.

② <자막> 구약시대 하나님의 두 증인 : 2. 엘리야

- 엘리야 때 아합 왕을 중시하여 백성들이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을
섬긴다. /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씀의 불을 받아 선포한다.

<자막> 내 말이 아니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
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

- 이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연속되어 땅이 갈라지고, 양들이
마르고, 풀이 없어 소가 헤매고, 엘리야는 그릇 시냇가로 가서 산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

-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모습

그 제물에 불이 내려와 사르는 모습

이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멸하는 모습

- 마지막으로 한 화면에 모세와 엘리야가 반을 나눠 나온다.

(모세와 엘리야 시대 배경을 배경으로 하고 자막으로 처리)

<위쪽에 자막> 구약시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아래쪽에 자막> 모 세

엘리야

외적인 역사 : 말씀을 현실로 증거

내적인 역사 :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외침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도 시대마다 두 명을 세워 그들을 두 증인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하시며 뜻을 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두 증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증거하며 그 시대 하늘의 뜻을 펴습
니다.

* <영상2>부터 <영상8>까지는 자연스럽게 화면에 나온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복귀 노정 때 하나님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신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했습니다.



<모세> 애굽 → 신광야로 인도

<여호수아> 신광야 → 가나안으로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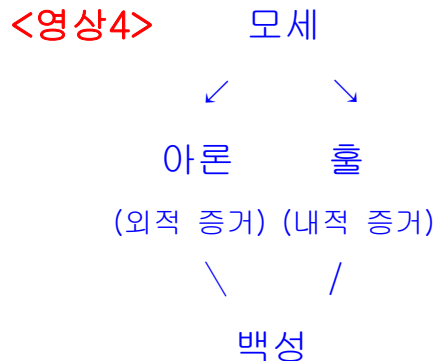
* <모세 당세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그 형 ‘아론’을 세워 역사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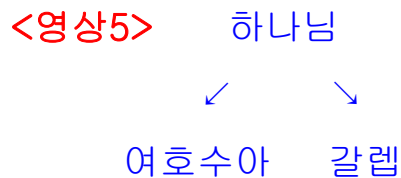
* 모세가 신광야로 나온 후 <광야 노정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아론’과 ‘홀’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손을 받쳐 주어 이기게 하였고, 두 증인이 되어 모세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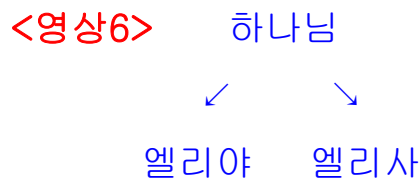
(출 17:8-12).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외적으로 모세를 증거했고, 훌은 모세의 신앙의 혈통으로서 내적으로 모세를 증거했습니다.



* <가나안 복지 정복 때> 하나님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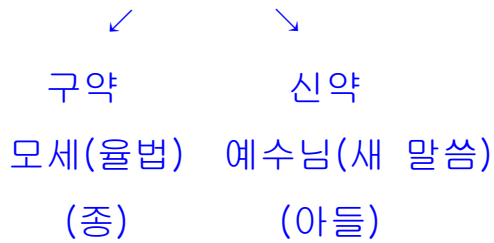


* <엘리아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엘리아’와 ‘엘리사’였습니다.



* 구원역사를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나뉘 볼 때, 구약시대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을 증거했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믿고 따르는 자들을 아들로 부활시키며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영상7> 구원역사 (구약/신약)



* <예수님 당세 신약시대가 시작됐을 때> 구세주 예수님 앞에 두 증인은 보다 구약 쪽에 있는 ‘세레 요한’ 과, 새 역사로 온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였습니다.

<영상8> 예수님



* 그러다 세레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신약역사 때>는 구약 쪽과 신약 쪽을 매치시키는 신약의 사도인 ‘사도 바울’ 과 ‘주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 앞에 두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영상9> 예수님



-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배우고 왔기에 보다 체계 있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 말하기를 “너희는 과거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를 죽였다. 시대가 지혜가 없었다. 관원 중에 한 사람만 알았어도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다.” 라고 증거했습니다(고전 2:8).

-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알고, 주님의 심정을 받아 주님을 증거하며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습니다(행 2:41).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마 16:16). 이에 주님도 맞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확실히 깨달아 알았고, 이에 주님도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 확실히 알고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주님이 보낸 자만이 주님에 대해 확실히 알고 주님의 증인 되어 전하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전도하신 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영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역사하시고 이후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 복음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내 아들이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며 증거하게 하셨습니다(요 1:29-34).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 두 감람나무 두 증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 시대 뜻을 펴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노정에서 하나님이 보낸 두 증인은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집트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이끌어 냈을 때 모세 앞에 두 증인은 ‘아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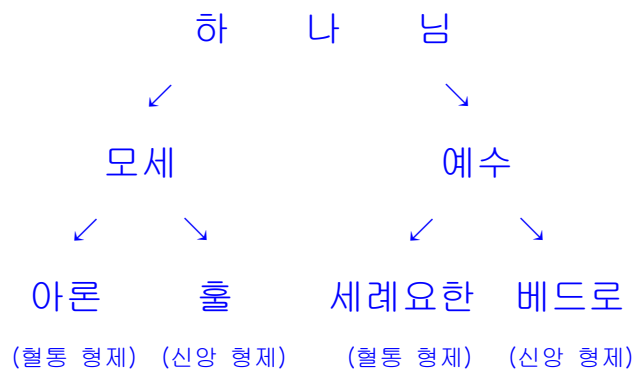
‘홀’ 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두 증인은 ‘세레 요한’ 과 ‘베드로’ 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두 증인 중의 한 명은 혈통 형제 중에서 세웠고, 다른 한 명은 신앙의 혈통 중에서 세워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영상10> 모세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모세의 형인 ‘아론’ 과 신앙의 형제인 ‘홀’ 을 세워 모세를 증거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예수님의 친족 형인 ‘세레 요한’ 과 신앙의 형제 ‘베드로’ 를 세워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영상10>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항상 이같이 구상하시고 섭리하며 가신다.” 하셨습니다.

<영상11> 이 시대도 그와 같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 앞에도 주님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을 세워 시대 사명자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은 혈통의 형제 중에서 세워 외적 육적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다른 한 사람은 신앙의 형제 중에서 세워 내적 영적으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먼저 온 자는 보다 육적 증거자로서 육적 세계를 증거하며, 나중에 온 자는 보다 영적 증거자 사명으로 영적 세계를 증거합니다.

<영상11> 이 시대 사명자



혈통 형제

신앙 형제

(외적, 육적 증거자) (내적, 영적 증거자)

<영상12>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볼 때 하나님 앞에 두 증인은 ‘모세’와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 모세는 육적 행실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중시하여 하나님을 증거해 주며 육신을 행하게 하여 영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육 구원에 율법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 구원에 믿음 말씀입니다.

모세 앞에 두 증인인 ‘아론’은 육적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보다 내적인 것을 증거하며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앞에 두 증인인 세례 요한도 보다 구시대와 신시대를 연결시켜 외적인 것을 증거하며 말씀했습니다. “너희 행동으로 율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여라.” 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내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증인이 되어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12> 정지 화면으로 화면에 띄워 놓고, 설교자도 보고 도표도 보면서 설교를 듣게 하면 된다.

<영상12> <영상10>과 동일

이제부터 주님이 더 깊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13>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전능하신 내 아버지와 나 예수가 세상에 뜻을 어떻게 세우는지 알고, 지금 섭리역사도 과거의 성경 역사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알아야 너희 모두가 중심할 것을 중심으로 뜻을 이루며 역사를 펼 수 있다.

하나님과 나 예수의 행함을 따라 중심을 맞추지 않고 각자 자기 교회, 자기 방법으로 하는 자는 교만한 자요, 육적인 자요, 무질서한 자요, 무지한 자요, 나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다. 하늘나라는 질서의 세계다. 하늘나라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땅에서 하늘의 질서를 행하면서 가야 된다.

◆ 하나님은 항상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을 세워 그 시대 뜻을 펴 나가신다.

〈구약과 신약을 나눠 볼 때〉 구약 때는 모세를 보내셨고, 신약 때는 나 예수를 보내어 역사를 펴 나가셨다.

1.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보내시어 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시대 구원할 자들에게 육신의 행실을 가르치게 하셨다.

이때 모세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아론’과 ‘홀’이었다.

- 모세의 형인 아론은 외적으로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는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고 증거했다. 모세가 자기는 말을 못한다 하니, 하나님은 “네 형제가 말을 잘하니 증거할 것이다.” 했다.

- 그리고 신앙의 형제 ‘홀’은 모세 옆에서 영적으로 받쳐 주었다. 그러면서 모세가 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늘 보았다. 백성들은 못 보았으니 홀이 본 것을 내적으로 증거하며 자세히 말해 주었다. 고로 내적인 것은 모두 홀을 따라 배우고 증거했다.

아론과 훌의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를 받고, 그 터전 위에 모세는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했다. 아론과 훌은 그 시대 하나님께서 땅에 보낸 자 모세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다.

2. 신약시대에 하늘의 내 아버지가 보낸 자는 나 예수 한 명이다. 내 앞에 증인은 ‘세레 요한’ 과 ‘베드로’ 였다. 이들은 내 앞에서 나에 대해 증거하며 나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증인을 세우신 목적은 두 증인이 나 예수에 대해 확실히 알고 증거함으로 백성들이 나 예수에 대해 더욱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세레 요한같이 보다 외적으로 증거해야 할 자들은 세레 요한을 통해 보고 듣고 배워 나 예수를 외적으로 전하고, 베드로같이 보다 내적으로 증거해야 할 자들은 베드로를 통해 보고 듣고 배워 나 예수를 내적으로 전하여 나를 따르게 했다.

세레 요한은 외적인 사명을 가지고 증거했다. 고로 세레 요한을 따랐던 자들은 세레 요한같이 외쳤다. 그러나 나 예수의 증인으로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끝났다.

베드로는 내적인 사명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나 예수에 대해 증거하며 하루에 3000명씩 전도했다. 내적인 자들은 베드로같이 고백하며 나 예수를 증거하며 많은 생명들을 전도했다.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 따랐느냐. 아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증거했기에 모두 나 예수를 보러 오고 나 예수를 믿고 따랐다. 베드로를 따라 베드로같이 나 예수에 대해 외쳤다. 그 터전 위에 나 예수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구원역사를 펴 나갔다.

→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약과 신약 구원역사의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보낸 자로서 모세 때는 모세였고, 나 예수 때는 나 예수였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시대 핵심>

◆ 이 시대도 하늘 아버지의 법칙과 구상과 체계와 질서는 동일하다.

나 예수의 재림을 위해 나는 시대 증거자를 보냈다. 성약 섭리역사를 위해 내 앞에 두 증인을 보냈다. 너희 선생 앞에 온 자는 먼저 온 자로서 내 앞에 보다 외적인 증인이었다. 그러나 나 예수가 역사하니 자기 자신을 주로 생각하여 제대로 나의 뜻을 펴지 못했다. 고로 보다 내적인 시대 중심 표상자 너희 선생이 육적 재림과 영적 재림을 쫓개면서 내 아버지와 나 예수에 대해 제대로 증거해 왔다.

재림시대 나의 육으로 쓰이는 시대 표상자인 너희 선생 앞에도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을 세웠다. 너희 선생을 증거케 하여 그 터전 위에 선생이 나 예수와 이 시대를 온전히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전반기 때 너희 선생의 두 증인으로 세운 자들이 제대로 사명을 하지 못했다. 고로 지금 후반기 때는 외적인 사명자와 내적인 사명자를 두 감람나무 두 증인으로 다시 세워 너희 선생을 증거하게 하고 있다. * 그 터전 위에 너희 선생은 나 예수와 이 시대를 증거한다.

모두 깨닫고 그 뒤를 이어 하나 되어 모두 두 증인 되어 외적, 내적으로 증거하여라. 줄을 설 때 기준을 세운 자로부터 두 줄로 맞추지 않는 자는 행동, 마음, 정신, 생각이 딴 데 있는 자이며, 모르는 자요, 자기 뜻대로 하는 자들이다.

★ 선생 앞에 세운 두 증인의 줄을 맞추어라. 외적인 줄과 내적인 줄을 맞춰서 자기 개성대로 배우고, 너희 모두도 자기 위치에서 내가 보낸 자를 통해 내가 하는 말씀과 역사를 증거하여라. 내가 보낸 자를 증거하는 것이 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 선생에게 축구를 하게 하면서 섭리사 구조를 더욱 깨닫게 해 주었다. 고로 섭리사 전체가 그 조직으로 행할 때는 선교가 잘되었다.

‘골키퍼’ 앞에 두 증인 같은 두 사람은 ‘라이트폴백’과 ‘레프트폴백’이다. 그 대열을 맞춰서 ‘최종 공격수’ 앞에 두 증인 같은 두 사람은 ‘라이트윙’과 ‘레프트윙’이다. ‘중앙’에도 똑같이 허리 공격수 두 명, 최종 중앙 공격수 두 명을 세워 앞뒤 좌우를 맞춰 공격하고 수비한다.

<영상14> 축구 조직

사탄도 이 같은 조직으로 너희를 공격하니, 너희가 이 조직으로 하지 않으면 패한다. 이같이 하지 않으면 전도도 안 되고 전도해도 빼앗긴다. 꼭 두 증인은 하나 되어 서로 증거해 주고, 서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증거해야 사람들이 믿고 따라온다. 양쪽을 보강해 주는 것이다.

지난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과 나 예수가 땅에 보낸 ‘중심자’ 앞에 세운 자들이 서로 싸워서 역사가 깨지고 망하기도 했다. 섭리사도 전에 세운 자들끼리 서로 얼마나 싸웠느냐. 내가 보낸 자 앞에 세운 증인들이 싸우면 역사가 깨진다.

또한 형제들이 무지로 두 증인을 악평해도 제대로 역사를 펴지 못한다. 너희 선생 앞에 세운 두 감람나무 두 증인들이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무지한 형제들을 통해 그같이도 악평하고 억울하게 하지 않았느냐. 증거자를 악평하거나 모함하면 나 예수가 그들의 입을 통해 심판한다. 증거자를 힐문하는 자들은 다 사탄 주관을 받아서 그러하다.

너희 선생을 못 보고 그 말씀도 듣지 못할 때에 너희 선생을 증거하라고 이미 내적 사명자와 외적 사명자를 세워 너희 가운데 보냈다. 그러나 제대로 모르니 제대로 싸 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알았으니 그때 못 한 것을 하여라. 아직도 그 대열에 맞추지 않는 자는 나 예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내가 말했으니 제대로 해야 나 예수도 네게 제대로 역사하고, 너희 선생도 그 터전 위에 나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

나는 내가 보낸 자와 보낸 자 앞에 세운 두 증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안다. 지금까지 그들을 악평하고 악하게 대하면 심판하여 다 내버렸다. 한 번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나의 말을 듣고 따르기 바란다. 그래야 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생명의 대역사가 일어난다.

<영상15> ★ 섭리사 전체는 너희 선생이 세운 자 뒤에 좌우로 두 줄로 서서, 나 예수가 너희 선생을 통해 전한 시대 말씀을 중심으로 한편은 보다 외적인 것을 증거하고, 한편은 보다 내적인 것을 증거하며, 나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나의 육으로 쓰는 너희 선생을 증거하여라.

섭리사 교역자들과 지도자들이 각자 자기 방법대로만 하면 이제는 정말 큰 죄를 짓는 자가 된다. 자기 방법대로만 하면 자기가 지도해서 따르는 자들이 모두 곁길을 가게 되므로 그 지도자가 생명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고로 이제부터 자기 방법대로만 하는 자는 지도자가 아닌 평신도로 일하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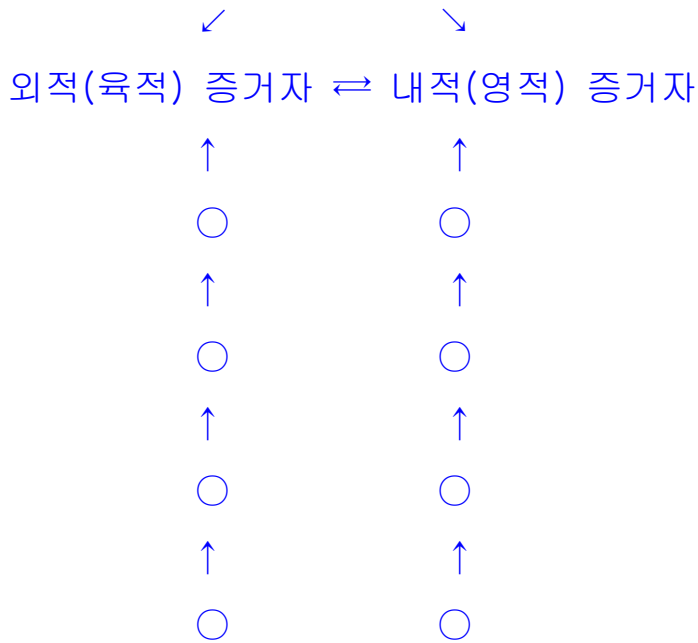
앞의 줄을 맞춰라. 너희 선생은 늘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두 증거자를 가르친다. 고로 그들만 안다. 그러니 그들에게 배우고 알고 너희도 그들과 같이 증거하며 행하여라. 모르고 행하면 외람된 행위다.

나 예수가 보낸 자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했는지 알고 증거하며, 너희 선생이 보낸 자는 너희 선생이 무엇을 말하고 행했는지 알고 증거한다. 고로 모두 줄을 맞춰 배우고 전체가 그같이 알고 함께 일하는 것이다. 육적으로만 해도 안 되고, 영적으로만 해도 안 된다. 비행기의 두 날개가 비행기 몸 전체를 날게 하듯이, 증인들이 ‘영’과 ‘육’으로 내가 너희 선생을 통해 한 말을 중심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꼭 영과 육, 두 가지로 증거해야 된다. 여기까지 **<영상15>**을 화면에 띄워 놓고, 도표도 보게 하고 설교자도 보게 하면서 설교하기.

<영상15>

하나님, 예수님 (쳐다보며 손짓하시는 모습)

시대 중심자 (쳐다보며 손짓하는 모습)



(줄 맞춰! 말 맞춰! 행동 맞춰!)

내가 보낸 시대 중심자 앞에 두 증인을 세우는데, 그중의 한 사람을 ‘혈통’ 중에 세우는 것은 그가 중심자를 보면서 같이 컸기 때문이다. 고로 그가 증인이 되어 중심자가 사생애 때 어떻게 했는지 증거하며 시대를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 선생이 산기도 다닐 때 너희 중에서 누가 그 모습을 보았겠느냐. 너희 선생의 형제들만 한집에서 같이 살았으니 알고 있다. 고로 혈통의 형제 중에 가장 합당한 자를 세워 증거하게 한다. 이는 외적 증거자다.

또 한 사람을 ‘신앙의 혈통’에서 세우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지 못하니 증거자를 통해 증거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고로 중심자를 따르면서 중심자 곁에서 가장 많이 보고 배운 자를 세워 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증거하게 한다. 이는 내적 증거자다.

다 전능자 내 아버지와 나 예수가 볼 때 합당해서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섭리사 전체는 나 예수의 말을 듣고 한 명도 빠짐없이 질서 있게 행하여 너희도 그와 같이 증거하여라. 항상 체계 있고 질서 있게 체계적인

사명자를 세워 나의 일을 하는데 이를 모르고 행하니 수고한 것보다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되고, 너희가 나 예수와도 너희 선생과도 멀어지게 되고, 나 예수의 마음과 너희 선생의 마음이 답답하고, 역사를 더 못 펴 나가게 된다.

섭리사 수천 명의 지도자들부터 이를 먼저 깨닫고 행하여라. 증거자에게 말씀이 가니 그 대열에 줄을 맞춰서 배우고, 너희도 증거자를 증거하며 그와 같이 내가 보낸 자와 시대와 나 예수를 증거하자. 그렇지 않으면 섭리사의 위력과 능력이 없어서 큰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사탄은 나 예수가 보낸 나의 증인과 또 내가 보낸 자가 보낸 증인들에게 갖은 누명을 씌우고 사람들과 같이 모함하고 힐문한다. 사탄이 사람을 쓰고 한 모함을 믿고 따른 자들도 같은 행위를 한 자로서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항상 사탄은 거짓이 제 뜻인 양 행한다.

섭리사를 따르다가도 시험에 들면, 전에 모함하듯이 또 나의 증인과 내 증인의 증인들을 모함한다. 사탄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같이 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내가 보낸 자와 그가 보낸 증인들을 모함하거나 악평하거든 내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같이 하는 줄 알아라. 항상 그러하다. 이제 그같이 행하는 자들은 나의 섭리사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후회하고 이를 갈게 된다.

사탄이 역사할 때는 옳은 줄로 알고 한다. 그러다 타락되고 악평한다. 그리고 사탄은 그를 버리고 떠난다. 이미 증인들을 악평하고 모함하고 자기도 타락된 다음에 사탄이 떠나가면 그제야 깨닫고 슬퍼하며 깊은 한숨을 쉬며 후회한다. 고로 나 예수가 오늘 두 증인에 대해 말했다. 100% 믿고 행치 않으면 믿고 행하지 않은 만큼 사탄이 틈타 역사한다.

너희에게 나의 두 증인에 대해 비밀을 말해 준 주 예수다. 샬롬!

<영상16> 해당 영상

<예수님 인사> 나는 이 시대에 내가 나의 육으로 쓰는 자를 보내어

그 앞에 두 증인을 세워 그를 증거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보낸 자는 그 증거의 터전 위에 나 예수를 더욱 힘 있게 증거하게 된다. 너희는 증거자의 증거를 듣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내가 보낸 자를 증거하며, 그 터전 위에 내가 보낸 자가 나를 증거하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이 나 예수와 이 시대를 증거하여라. 나 예수를 증거하며 내가 보낸 자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두 증인에 대한 비밀을 말해 준 주 예수다. 샬롬!